

일 주 문



수계산림대법회 개최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23~ 24일 범어사 경내 대웅전과 보제루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개최했다.



<자비의선물> 5만개 발송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4월 22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전·후방 군법당에 <자비의 선물> 5만개를 발송한다.



서산시명장학금 전달
사회복지법인 봉은 대표 진화 스님은 4월 21일 법랑루에서 봉은장학생 275명에게 서산시명 장학금을 전달했다.



약사여래대불 점안
부산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은 4월 21일 자비암 경내에서 도심포교 21년 기년 약사여래대불 점안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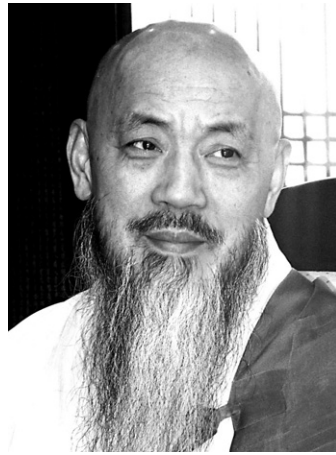
사상구불교연합신도 회장 취임
이상갑 부산광역시시의회는 4월 24일 파라곤호텔에서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장경축전 명예홍보대사 위촉
국악명장 김준호 씨는 4월 23일 한국무용가 손심심 씨와 함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아프리카에 韓불교 학교 세우길”

탄자니아 토지 ‘아름다운 동행’에
기증한 동봉 스님



“모든 것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단에 아프리카 토지를 기
증한 것도 아름다운동행에서 아프리카에 학
교를 건립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월 24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소
재 토지 4만여 평을 기증한 경기도 광주 우
리절 주지 동봉 스님(사진)은 기부를 한 계
기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이날 동봉 스님이 기증한 토지는 탄자니
아 수도 다르에살람 토지 8만3000m²과
킬리만자로 마랑구케이트 1만1600m² 등 2
필지다. 스님 역시 이곳을 학교 부지로 생각
하고 구입했으나 종단에서 아프리카에 학
교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를 선뜻 기
증한 것이다.

동봉 스님이 아프리카 구호와 포교에 관
심을 가진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2004년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 스님은 그곳에 한
국불교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재를 털어 아프리카 말라리아 환자들을
지원하며 학교 건립의 서원을 세웠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년이 좀
넘었는데 아프리카에만 250여 개의 한국

아프리카 부지 4만여 평 ‘쾌척’
조계종 전문학교 건립 급물살
헤이태식 신부와 인연 깊어
말라리아 환우 돕기 지속 추진

교회가 진출해 활동하고 있더군요. 한국불
교는 공식적으로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의 종단도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한국불교를 알
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단에서 활동한 헤이태식 신부를 만난
것도 이때다. 당시 이 신부는 동봉 스님을

‘동봉 신부’로, 동봉 스님은 이 신부를
‘태석 스님’으로 서로 부를 만큼 막역한
사이가 됐다. 둘 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원
력을 세웠기 때문에 급속하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태식 신부와는 형제와 같은 사이였습
니다. 같이 학교 부지를 살펴보고도 했죠.
한국에 들어간다는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
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동봉 스님이 학교 부지를 기증함에 따라
아름다운동행에서 추진하는 아프리카 학교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재 아름다운
동행은 상주 직원을 통해 아프리카에 농업
전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
이다. 탄자니아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아름다운동행은 오는 5월 28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부
지와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선포식을 열 계
획이며, 자신이 매입한 학교 부지를 종단이
잘 이끌어 줄 것을 동봉 스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이제 아름다운동행과의 인연으로 더 크
고 여범하게 불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이제 저는 그간 지속해온 아프리카 말
라리아 환우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기증에 한국불교의 아프리카 구호
에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호국연무사 종각 낙성식 봉행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4월 19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
사에서 종각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 김상기 前육군참모총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총화중, 복지문화교육전승관 낙성



대한불교총화중 총본산 수진사(주지 남정)는 4월 23일 대
웅전에서 복지문화교육전승관과 연화세계 낙성법회를 봉행
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조
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한일
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사부대중 4000여명이 동참했다.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은 건평 7603㎡(2300여평) 규모로 복지
공간과 문화 및 교육 공간 등 2개동으로 조성됐다.
노덕현 기자

옥천사 회주 범조 스님 회고록 발간



포항 옥천사 회주 범조 스님의 고회례 및 회고록 출판기념
회가 4월 18일 포항 필로소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회고
록 <불속에서 핀 연꽃>을 부처님 전에 봉안한 범조 스님은 인
사말을 통해 “함께한 많은 인연 속에서 참 잘 살아 왔으며 도
반 모두가 수행길의 동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손은철 대주자장

“교정교화 포교할 때 가장 힘나”

현문 스님, 법의 날 ‘국민포장’ 수상



10여 년간 교정교화 포교에
헌신해온 현문정사 주지 현문
스님(사진)이 4월 25일 대법원
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
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
다.

현문 스님은 2004년부터 지
금까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회 불교 분과위원으로 재직하
며 30여회에 걸쳐 불교분과 월
례회의, 교정위원 간담회, 교정
협의회 총회 등에 참석해 교정
· 교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교정협의회 활성화에

공헌했다.

또한 스님은 50회에 걸쳐 불
교 종파교회를 비롯해 수계시,
독경대회, 수용자 교리도를
실시해 7000여 명의 수용자에
게 신심을 키우고 갱생의욕을
진작시키는 등 범죄예방 활동
에 기여했다.

현재 현문 스님은 동작구 불
교연합회 교무이사, 생명환경
자연보전 실천회 이사, 사단법
인 한국불교 교화복지 선도회
등을 맡고, 불우출소자 직장 소
개 등을 통해 갱생의욕 고취에
헌신하고 있다.

현문 스님은 “재소자들이
인간다운 불자로 살기를 발원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교정 포교활동에 전념한지
12년이 됐는데,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욱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은아 기자

“수좌 스님들 복지 위해 써달라”

일면 스님, 선원수좌복지회에 1000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사진)이 선원수좌복지회에 복
지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4월 24일 호계
원장실에서 선원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용문선원 선
원장)과 이사 정찬 스님(대흥
사 선원 유나)에게 기금을 전달
하며 “수좌 스님들은 한국불교
의 희망이며 자량으로 수행에
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잘 모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와 정반대

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에 의정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일면 스님의 큰 도움을 잊지
않고 수좌복지회를 개선해 수행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선원수좌회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일찍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지난
2010년 발간한 <선원정규> 속
에 불교적 의미에서의 장기기
증을 수록해 장기기증 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또 의정
스님을 비롯해 설정 스님(덕송
총림 방장),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 등 수좌회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직접 장기
기증희망자로 등록해 장기기
증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
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은아 기자

목탁 스님, 투라 우쉐만 미얀마하원의장과 오찬



(사)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목탁 스님은 4월 24일 롯
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투라 우쉐만 미얀마하원의장 일행
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오찬에는 하원의장과 우켄웨이 미얀마 국회의원(전경
련 회장), 뉴하라이 미얀마 한국대사 등이 함께했다.

이번 방한은 1월 강창희 국회의장의 미얀마 방문에 따
른 답방이다. 이 자리에서 우쉐만 하원의장은 “목탁 스님
의 미얀마에서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민간교류에 깊은 감
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여러 경로의 발전적 교류를 기대
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목탁 스님은 “한국에서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우쉐만 하원의장 일
행은 방한 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병세
외무장관, 강창희 국회의장과 면담, 기업방문, 한국계
발연구원 방문 등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Dibangkkara Seolleui Chochung 10il Jipjungsuhaeng' (Di-bang-ka-ra Se-ol-leui Chochung 10-day Concentrated Practic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tupa and text describing the event's purpose and details.

Advertisement for 'Cheongsoonyeonghyeophui' (청소년교화연합회) youth activities. It includes a silhouette of a person in traditional dress and lists various events and contact information.